

演者들은 최근 mannitol 重毒症에 동반된 急性腎不全 1例를 치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환자는 54歲 남자로서 4~5년전부터 시작된 後頭痛으로 高血壓이 있음을 알았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오던 중 입원당일 심한 두통, dysarthria, 右側半側痲痺가 갑자기 나타나 神經科에 입원하였다. 입원당시 血壓은 200/130 mmHg, 체온 36.5°C, 맥박 80회/분, 호흡수 20회/분이었으며, 理學的檢査上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右半側痲痺와 右顔面神經痲痺가 있었으나 폐 및 심장에는 이상소견이 없었고 사지의 부종도 관찰되지 않았다. 입원당시 尿檢査上 이상소견이 없었고 血清電解質은 Na 142 mEq/L, K 4.4 mEq/L로 정상이었으며 BUN 27 mg/dl, 血清 creatinine 値는 2.5mg/dl로 약간 상승되어 있었다. 腦電算化斷層攝影에서 左視床部 血腫과 주위 腦浮腫이 확인되었고 입원 3명일째 심한 구토와 의식장애가 나타나 腦浮腫을 경감시키기 위해 15% mannitol 300 ml를 4시간 간격으로 3일간, 그후 mannitol 200 ml를 4시간 간격으로 2일간 투여한 뒤 mannitol을 100 ml로 감량하여 8시간 간격으로 1일간 총 765 gm의 mannitol을 정맥주사하였다. 입원 6명일째 환자의 의식은 半昏睡상태로 악화되었고 흉부 X선 檢査상 肺水腫이 합병되었다. 이때 시행한 혈액의 生化學檢査에서 Na 111 mEq/L, K 5.8 mEq/L, BUN 136 mg/dl, 血清 creatinine 8.0 mg/dl 등의 이상소견이 나타나 입원 11명일째 內科로 轉科되었다. 轉科당시 主要 檢査室所見으로는 血清 Na 114 mEq/L, K 5.2 mEq/L, 血糖 205 mg/dl, 血清滲透質濃度 387 mOsm/L, 尿滲透質濃度 449 mOsm/L였으며 osmolar gap은 78.4 mOsm/L로 증가되어 있었다. Mannitol 투여를 즉각 중단하고 6시간의 血液透析을 시행하였으며 透析시작 72시간 후에 환자는 의식이 명료해짐과 동시에 osmolar gap도 4.1 mOsm/L로 정상화 되었다.

— 52 —

말기신부전환자에서 B형 간염바이러스 표식자의 발현상

국립의료원 내과

김미자·민경업·김열자

고려의대 내과

표 회 정

만성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환자에서 B형 간

염에 대한 위험도가 인지되어 왔으며 그 원인으로는 인공신장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치료, 반복적인 정수나 수혈, 만성신부전증환자에서의 면역기능의 저하 등을 들 수 있다.

1982년 10월부터 1984년 7월까지 국립의료원 내과에 내원한 말기신부전환자 73명과 이들 중 3개월이상 만성혈액투석요법을 받은 48명을 대상으로 3개월이상 24개월까지 B형 간염바이러스의 표식자들을 추적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1) 말기신부전환자 73명에서의 HBsAg 보유율은 9.6%로 정상인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, Anti-HBs와 Anti-MBc의 양성율은 각각 34.5%, 83.7%이었다.

2) 48명의 만성혈액투석환자에서 치료결사시 HBsAg 보유율은 8.3%이며, HBsAg의 양성전환의 12개월 기간빈도는 8.7%이었다.

3) 혈액투석환자의 혈청 HBsAg의 양성전환율은 혈액투석기간 및 혈액투석기간 중의 수혈 unit 수와 비례하였다.

— 53 —

만성신부전증환자에서 말초혈액 임파구의 분포 및 세포매개 면역기능에 대한 연구

연세의대 내과

정상만·함기백·주현영

하성규·이호영·한대식

의 과

박 기 일

만성 신부전증환자에서 세포매개 면역기능이 저하됨은 잘 알려진 사실로써 최근 suppressor T-세포의 기능항진이 판여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투석치료로 이의 호전도 보고되고 있으나 그 확실한 기전은 아직 확실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.

연자들은 신부전증환자에서의 세포매개 면역기능 저하 정도와 투석치료에 의한 호전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말기만성신부전증환자 18명을 대상으로 말초혈액임파구의 분포와 PHA 및 Con A를 이용한 lymphocyte transformation test를 투석치료전과 정기적인 혈액투석치료 3~6개월 경과후에 각각 측정하여 그 성적을 보고하는 바이다.

1) 전체 T-임파구, B세포, helper T-세포 및 suppressor T-세포의 분포는 정상인과 신부전증환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active-T 세포에선 정상인에서